

월요광장

‘5월, 새벽을 지킨 소년들’



박석무
우석대 석좌교수

항쟁 기간에 어린 소년들이 죽어간 기록이 자세하고, 고등학생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5월 27일 새벽을 지킨 소년들의 이야기는 5월 정신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만천하에 알려주는 위대한 증언이자 투쟁의 기록이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지키고 파괴되는 민주주의를 살려내려고 죽기로 맹세한 소년들의 정의로운 혼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증언이요 기록이다. 이런 이유로 5·18은 의외로 민주항쟁이요, 학살자에 맞서 싸운 의로운 투쟁이었다. 소년 시민군들이 싸우던 과정에서 목격했던 진실들, 부녀자들이 시민군에게 먹이려고 주먹밥을 제공하던 일, 적십자병원 앞에 남노소 모두가 팔을 걷고 헌혈의 대열에 줄을 서던 모습, 그 많은 시민군들이 총을 들고 싸우면서도 길가의 전담포·은행·금은방 하나 손대지 않았던 사실, 이런 모든 진실은 의로움에 분노한 민중은 정의로운 일 아니냐고,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 순진무구한 소년들의 증언이 바로 진실이다. 이 한 권의 책이야말로 군홃발과 총칼에 의해 고귀한 생명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학살당했고, 비록 죽음이야 면했지만 생존하기까지의 참담한 고통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다. 죽어간 열사들의 위대한 투혼도 자랑스럽지만, 못 죽은 한으로 생을 걸고 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소년 투사들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개개인의 스토리를 모아놓고 보면 5월 항쟁의 전모가 완전하게 나타나고 쿠데타 세력인 계엄군들의 잔인무도한 학살 만행을 숨김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이다. 그동안의 5·18 관계 자료집은 주로 대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이 주역으로 정리되었지만, 이번에 발간된 소년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자료집이다. 살기는 좋아하고 죽기는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대학생 선배들이 어린 소년들은 귀가하기를 권하며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했지만, 소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들이 새벽을 지켰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래서 필자는 그 책의 추천사에서 “소년들은 위대했고 계엄군은 잔인하고 무도했다”라는 말을 주저 없이 내걸었다. 그렇다! 위대한 소년들의 5·18 체험기와 증언록인 이 책은 5·18 진상을 밝히는 자료로서도 가장 귀중한 자료의 하나가 될 것이다. 책을 펴낸 ‘5·18민주항쟁 고등학생 동지회’가 자랑스럽다. 몇몇 소년들의 시민군 활동 과정을 읽어보면 5·18 학살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던지도 알게 되고, 숨 쉰 계엄군들이 양민 학살에 주저함 없이 총질하던 현장을 읽을 수 있다. 새벽을 지키다가 겨우 죽음을 면했지만 무자비하게 체포 구금되던 과정에서 그들이 저지른 만행도 역력히 알게 되는 기록이 많다. 인간인 계엄군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야수처럼 어린 학생들을 짓밟고 구타하던 모습은 5·18 학살의 잔인무도함을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장하다. 어린 소년들이여! 이제 그들도 모두 환갑이 넘은 중늙은이로 변한 사람이 많은데,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망가져 고생하는 시민군도 많고, 생활의 안정도 찾지 못한 사람도 많다. 어떻게 해야 5·18의 진실이 완전하게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할 방법이 있을 것인가. 책을 읽다 보면 눈물이 앞서기만 한다. 이 책이라도 널리 널리 보급되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빨리 오기만 고대한다.

기고

미래차 국가산단 패키지 ‘소부장’으로 이어가자



김경만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광주는 연 72만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로, 관련 종사자는 2만 명을 상회한다. 하지만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부품 생산 기업이나 종사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내연기관차에는 2만 5000~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반면, 수소차는 2만 3000개, 전기차는 1만 5000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산화율도 문제다. 내연기관차는 99%에 이르지만 전기차는 68%, 수소차는 71%에 그치고 있다. 미래차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부품 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광주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도 될 수 있다. 광주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꼭 필요한 이유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추진해 왔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과 반도체 국수주의가 본격화된 2021년에는 K-배터리 전략, K-반도체 전략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국가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축으로 하는 산업 재편을 이뤄냈다. 2020년 5월에는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1월 다섯 개의 특화단지를 선정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충북 청주 이차전지 특화단지, 충남 천안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전북 전주 탄소소재 특화단지, 경남 창원 정밀기계 특화단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이들 소부장 특화단지 중 하나 빠진 것이 있다. 바로 미래형 자동차 특화단지다. 뇌와 심장이 반도체와 배터리로 이뤄진 미래차 산업이야말로 공급망 위기의 순간, 산업 발전의 기회를 열어 줄 열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미래차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음 소부장 특화단지는 미래형 자동차 특화단지여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다. 필자는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작년 7월에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포럼’을 주최했으며, 틈 날 때마다 산업부에 그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저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산업부 장관을 질타해 “내년 중 공모 평가를 거쳐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로서 올 상반기 내에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심의 의결하고 특화단지 신청 공모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규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광주시와 시민 모두가 힘 모아 뛰듯 우리는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땀 흘려야 한다.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미래차 선도시 광주’의 완결판을 만들자.

수필의 향기

어느 날 버스에서



김향남
수필가

어 있는 게 보였다. 그중 하나를 나에게 내밀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밤급 마신 뜨거운 커피가 채 내려가기도 전인데 내키지도 않았다. “그럼 이겨라도.” 이번엔 옥수수차를 내밀었다. 막무가내의 친절이었다. 나는 다시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다 나중에 드시지요.” 이런 무례가 있나. 남자는 허락도 없이 내 무릎 위에 음료수를 올려놓고 뜸금없이 물었다. “베르디 아시지요? 이탈리아 음악가.” “.....” 내가 엉거주춤하는 사이 남자는 벌써 다음 말로 건너가고 있었다. “베르디는 오페라 아이디어를 비롯해 리골레토, 훈희 등 대단한 명곡들을 남겼지요. 그런데 그분 생각보다 훨씬 더 굉장한 사람이더라고요. 뭐냐면, 베르디가 살았던 당시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50세에 불과했대요. 근데 그때 80세의 노인이었다고 양반이 ‘팔스타프’라는 오페라를 작곡했어요.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이미 음악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오페라를 작곡했느냐고요. 베르디가 대답했죠.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완벽을 추구해 왔다. 완벽에 도전할 때마다 늘 아쉬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한 번 더 도전해 볼 의무를 느꼈다, 라고요.” 남자는 자신이 곧 베르디라든 듯했다. 베르디의

도전에 축하라도 보내는 듯 손바닥으로 연신 자신의 무릎을 쳤다. 그리고는 또 건너뛰고 있었다. “아, 근데 혹시 작가분 아니십니까? 아까부터 뭘 계속 쓰고 계시던데. 혹시 발표한 작품이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아주 큰 영광으로 알려줍니다만.” 이런 또 뭘가, 남자는 넘겨짚는 재주도 뛰어난 모양이었다. 내가 줄곧 끄적이고 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짜 경계의 태세를 갖추고 서예의 그 음료를 좌석에 부착된 그물주머니로 내려놨다. 긍정도 부정도 없는 내 반응에 남자 역시 별다른 말은 없었다. 나는 열자리의 남자가 심히 거북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음료는 대화든 뭉가들 가까이 나누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오가는 시간을 온전히 붙잡아 매도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어인 불청객? 아니 웬 처한? 생각은 이미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남자는 더욱 끈질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말투로 보아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았지만 사람 속을 어찌 알겠는가. 차에서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리를 바꿀 수도 없고, 순제 대꾸를 하지 않는 게 산책이긴 하겠지만, 남자는 멈춤 줄을 물었다. 계속하여 그는 알고 있는 작가들을 늘어놓고, 그리고 사람은 저마다의 외로움이 있지요. 그렇지만 않아요? 문득 동의를 구해 왔다. 말은 저 혼자 떠돌다 저 혼자 쓰러졌다. 이윽고 목격자에 도착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을 빠져나오듯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다.

社說

화물차 불법 주차 극성...공영 차고지 확충을

대형 화물차들의 도심 불법 주차가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주택가를 점령해 밤샘 주차를 일삼는 화물차들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단속 강화와 공영 차고지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모두 1만 4202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는 운송사업자 차고지나 공영 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또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버스나 화물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기 전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주가 차고지 부재로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유로 계도 처분 위주로 단속이 진행되면 불법 주차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단속 건수는 2020년 5510건, 2021년 5048건, 2022년 4709건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밤샘 주차를 하면 차종에 따라 5만~2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하지만 대부분 계도 조치로 끝나다 보니 과징금 부과 건수도 2021년 796건에서 2022년에는 643건으로 감소했다. 부족한 인프라도 불법 주차를 양산하고 있다. 운수업체나 개인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용하는 공영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에 화물 공영 차고지는 진곡산단과 평동산단 등 463면에 불과한 데다 차고지라도 모두 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코로나19도 이젠 스그려지고 있는 만큼 광주시는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으로 화물차 불법 주차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공영 차고지 확충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마침내 해제됐지만

오늘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난 2020년 10월 정부의 의무화 조치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일 부터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했다. 지난 한 달 반 사이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는 54.6% 줄었다. 처방전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는 마트·약사 등 대형 시설 내에서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은 일반 약국과 병원, 요양병원,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 추가 해제는 방역의

무게 중심이 개인 자율로 한 걸음 더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마스크는 여전히 호흡기 감염병에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다.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방역 당국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자율 착용해 달라고 권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으로 마스크 착용 자율화는 코로나19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의 출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온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려면 고위험군 보호와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토착화되는 코로나19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공공의료 시설 확충을 통해 감염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우리는 한 줄의 진실을 찾아 사흘을 걷고 사흘 밤을 새웠다” 광산구 월곡 고려인 문화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에서 마주하는 문구다. 문화관이 개관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획해’ 마련한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획해’는 조국의 독립과 우리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10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담아낸 전시는 오래 품은 뜻만큼이나 의미가 깊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3년 3월 1일 블라디보스크에서 ‘삼일일일’이라는 신문이 발간됐다. 3·1운동 제4주년을 기념해 발행된 신문은 제호가 말해 주듯 3·1정신을 오롯이 계승했다. 그렇게 지역만의 유행의 땅이 계승했다. 그렇게 지역만의 유행의 땅에서 독립을 학습고대하던 고려인들은 신문 창간을 계기로 독립운동의 햇빛을 지켜왔다. 창간호에 게재된 ‘삼일운동략사’와 ‘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1919년 만세운동에 나섰다 일본 경찰의 칼에 팔이 잘린 한 여학생의 기록은 당시 광주 수피아여학교 학생인 윤영숙으로 추정된다. 원팔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오른손에 태극기를 쥐

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비분강개기가사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온다. 고려인들이 만든 ‘삼일일일’은 이후 ‘선봉’으로 바뀌고 1938년에는 ‘레닌기치’로 변경된다. 강제 이주와 탄압이라는 부침을 딛고 1991년에는 ‘고려일보’로 재호를 바꾼다. 소련 붕괴 여파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간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고려인들은 모국어 신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 특히 우리말과 글로 된 작품을 꾸준히 게재해 한글 문화의 꽃을 피운 것은 큰 결실 가운데 하나다. 얼마 전 역사 문화 탐방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들이었다. 고려일보도 둘러봤다는 광산구 누르푸른작은도서관 이순욱 관장의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는다. “130여 민족 중 아홉 번째인 고려인들이 모국어 신문을 100년이 다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에 존경과 감사를 올리고 싶다. 스탈린과 소련 정부는 중앙아시아 황무지에 고려인들을 버렸다.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분투했고 고려인들의 삶을 생각하자 눈물이 났다.”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skypark@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circulation and subscriptions.